

[현금계좌 : 신한은행 301-01-916707 안동교회]

* 보내는분은 필히 성명+현금종류를 표기해주세요

예) 홍길동주정, 홍길동감사, 홍길동십일조, 홍길동해외선교...

<신일조현금>

김미란 김미선 김옥실 박아영 박정희 박지윤 배호근 백병기 오정현 유장선
장금녀 장문자 장미화 정규심 최다성 황영태 황정애

<주정현금>

강기석 강승희 고명수 곽홍섭 김경아 김길성 김대영 김연신 김영희B 김유선B
김재준 김정단 김정호 김종만 김중순 김주미 김해숙 김현수 김혜지B
김화자 노기방 마영규 문윤희 민동호 박선숙 박성준 박정희 방민 변경인
손선경 손우정 송홍식 양은선 오현숙 원광자 유양재 유양재 유준자 유혜정
유화영 윤인미 윤혜원 이광섭 이선자 이성 이연화 이영수 이영순 이영은
이정숙 이호창 임동희 임채호 임현우 전병권 전봉순 정규심 정미란 정옥자
정주원A 정학재 제갈희선 조민숙 조영희 조정애 차은미 최예순 최재광 한미경
허동각 홍동근 황경선 황영태 황옥희

<주일현금>

김봉래 김세운 김은주 박진영 백종관 우순형 유경희 이선옥 이형섭 최호정
무명4

<감사현금>

곽홍섭 김나영 김현수(범사) 박정희(범사, 북촌스마트경로당 주심) 원광자
유준자(교회창립) 윤정희(범사) 이광호 이규일 이을(임용) 이진영 임채호
전만순 전정임(범사) 홍동근 무명3

<기금>

(장학) 고병걸

<목적현금>

(사회봉사) 김영지B

<선교현금>

(북방) 김중만

*3월 안동교회 중보기도

- 3월에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새롭게 말씀하소서.
- 피택된 향촌직분자들이 훈련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고, 섬김의 마음과 영적 은사를 더해 주셔서, 앞으로 맡게 될 귀한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 교회가 세상 앞에 화해와 평화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아픔을 딛고 일어난 공동체의 신앙과 삶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 예 배 시 간 안내 ✠

예 배	시 간	장 소	담당교역자
주일예배	영아유치부	오전 11시	영아유치부실 김은주
	아동부	오전 11시	아동부실 최다성
	중고등부	오전 11시	중고등부실 장희찬
	1부	오전 9시	예배당 황영태
	2부	오전 11시	예배당 황영태
3부(청년)	오후 1시 30분	예배당 김태진	
수요기도회	오후 7시	예배당 황영태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시 30분	예배당 황영태	

원로목사	유경재	2부찬양대지휘	김성미
담임목사	황영태	1부오르가니스트	민동림
부목사	김경아 마영규	2부오르가니스트	김연주
파송선교사	을지자르갈(몽골)	간사	임동희
협력선교사	이영철 오영환	관리	김기복
전도사	김태진	어린이집원장	김은주
교육전도사	김은주 장희찬 최다성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 27:46)



2 부

대한예수교
창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안동교회 1909년 3월 첫주일창립

제4032호
2026. 3. 15.
사순절 넷째주일

2026년도 주제 :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II
창조세계 보전의 해

“십자가, 당신의 인생을 다시 쓰다”

마태복음 27:45-50

우리는 고통이 찾아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묻게 되며, 세상 그 누구도 내 아픔을 모른다는 지독한 고독감에 빠집니다. 기독교는 고통의 이유를 다 설명해주지 않지만, 고통 속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여 줍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우리가 겪어야 할 영원한 버림받음과 고립을 주님이 대신 당하신 사건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기에, 이제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도 결코 혼자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직접 겪으신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며 곁에 계십니다.

소그룹 나눔 질문

1. [고통과 고독] 인생의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로웠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 당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2. [복음 적용]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버림받음'을 당하셨기에 내가 '절대 버림받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바꿀까요? "주님은 내 아픔을 다 아신다"는 고백이 당신에게 어떤 힘이 되나요?



서울시 종로구 윤보선길 57 (안국동)
57, Yunboseon-gil, Jongno-gu, Seoul, Korea
TEL. (02) 733-3395 FAX. (02) 733-3398
E-mail. office@andong-ch.org http://www.andong-ch.org

